“이승만기념관 반대…서울시장 만나자”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빠른 시일 내 면담 일정 조율
면담 거부 시 정진 기도 진행
태고종과 연대 방안 모색키로


이승만기념관의 건립 추진에 강한 비판을 한 종교편향특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교편향특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종교편향특위는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열린송현녹지광장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관련 논란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대응을 위해 이같이 결의했다. 조속히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이승만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다. 오 시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에는 뚜렷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서울시광장에서 정진 기도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 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 안팎에서는 “이승만기념관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조계종 종교편향특위를 비롯해 중앙신도회, 태고종 중앙종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불교를 분열시키고 박해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추진은 한국불교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오 시장이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을 강행하자 종교편향특위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높인 셈이다.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주 4·3 사건과 여순학살을 자행하고 ‘사사오입’을 통해 헌법 질서를 훼손한 인물”이라며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것은 심각한 역사왜곡”이라며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오세훈 시장이 송현광장을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 광장으로 두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개인적 욕망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태일 뿐”이라고 밝혔다.

위원 제정 스님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각하는 것은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운동사를 지우려는 의도”라며 “‘건국’이란 용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민정치, 독재정치로 점철된 이승만의 기념관을 송현광장에 세운다는 건 전두환 기념관을 광주에 세운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장 덕림 스님도 “불교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탄압했던 이승만에 (기념관을 건립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줘선 안 된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고종과 연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광 스님은 “태고종에서도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태고종, 나아가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과 연대활동으로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를 위한 불교계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위원장 선광 스님과 위원 제정·종원·설해 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 설도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이 참석했다.

“남북, 적대 멈추고 평화의 길로”

민추본, 조계사서 평화기원법회
태효 스님 “평화 다시 위협받아”



서울 한복판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목소리는 제각기 달랐지만 남북화합과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는 3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 것.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사회부장 도심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을 비롯한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근래의 남북 관계는 봄이 아닌 겨울을 다시 맞았다. 군사적 위기가 심화하는 이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추본의 남북평화기원법회가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한 불교계의 뜻과 노력이 대외적으로 천명되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본부장 태효 스님은 “우리는 분단과 전쟁을 겪은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격랑의 시간을 거친 끝에 평화를 이뤄냈지만, 그 평화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며 “불교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이해, 비폭력, 관용, 자비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회는 부처님의 평화의 가르침을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 실천하자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쟁반대 평화기원 다라니기도와 전쟁희생자 위령천도재는 진관사 수륙재보존회 어산스님들이 맡았다. 어산스님들과 함께 다라니기도를 독송한 사부대중들은 온 마음을 다해 남북의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전쟁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평화의 가르침을 받들어 합심하고 통일의 뜻을 모아 분단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되는 대비원력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의 마지막은 조계사 일주문을 출발해 공평사거리를 거쳐 해탈문으로 되돌아오는 연등행렬로 장엄됐다. 사부대중은 저마다 남북 평화와 화합, 통일을 기원하는 연등을 들고 행진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계의 뜻과 의지를 세상에 알렸다.

이민우 기자



진우 스님, 국가보훈부에 “애국에 진영 없어”

3월 7일 강정애 장관 예방
불교계 애국 활동도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균형적인 국가유공자 조명과 보훈을 주문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최근 진영논리가 극심해져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균형적으로 유공자의 업적을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애국의 가치가 희석되는 요즘, 애국자를 잘 보훈해야 미래세대가 애국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며 “애국자를 기리는 것이 국가보훈부의 역할이자 애국자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강정애 장관은 “다사다난한 역사 속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오늘을 만들었다”며 “‘모두의 보훈’ 슬로건 아래, 보훈을 특정일에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언제나 국가유공자를 기릴 수 있도록 부처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계의 애국활동 역시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사적으로도 한국불교계는 애국과 관련이 깊다”며 국난의 시기에 일어난 승병활동과 만해 한용운 스님·백초월 스님, 태극기가 발견된 진관사 등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언급했다.

강 장관은 “역사적으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불교계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보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교계와 협력하고 (불교계의) 업적을 기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 국가보훈부 최규정 정책보좌관, 용교순 보훈문화정책과장, 홍경화 운영지원과장이 배석했다.

이민우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장에 김보배 밀교신문 차장

임시총회서 만장일치 선출…부회장에 윤호섭 본지 기자



제22대 한국불교기자협회장에 김보배 밀교신문 편집차장〈사진〉이 선출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이하 불기협)는 3월 5일 서울 전국여성불자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김보배 밀교신문 차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는 윤호섭 현대불교신문 차장을 선임했으며, 부장단 인사는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회원 26명 가운데 위임을 포함해 24명이 참석해 성사됐다.

김보배 신임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회장으로 선출해주신 회원들의 믿음에 노력으로 보답하겠다”며 “불기협 설립 취지와 같이 선후배 간 소통 활성화에 힘써 회원사 및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우의를 증장하겠다”고 인사했다.

김보배 불기협 제22대 회장 당선자의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2년이다. 김 신임회장은 2006년 밀교신문에 입사했으며 불기협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중일 기자

